

경영자교체시점의 건설산업의 Big Bath 사례연구*

- 대우건설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

황성재** · 최유원*** · 문상혁****

요약

건설업의 경우 '진행률 기준'이라는 특수한 회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행률 기준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정과목들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우건설을 위시한 국내 5대 건설사(Big5)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시점에서의 Big Bath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추정 총계약원가' 및 '공사손실충당부채'(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 '미청구공사'의 항목을 조정하여 매출원가 및 대손상각비를 높임으로써,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2010년과 2013년, 2016년에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Big Bath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대우건설이라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에서의 Big Bath 현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계정과목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이익조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건설업에 있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당국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공헌점을 가진다.

핵심 주제어 : 건설업, 경영자 교체, 이익조정, 빅베스

* 본 연구는 제1저자인 황성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제1저자,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사업기획팀장, sinsekai@naver.com

*** 공동저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afoxyer82@nts.go.kr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hmoon@ynu.ac.kr

<논문 투고일> 2020.07.16

<논문 수정일> 2020.08.08

<게재 확정일> 2020.08.12

I. 서 론

최근 5년간 동양, 효성그룹,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굴뚝굴뚝한 분식회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대우건설은 1999년 분식회계사건으로 그룹이 해체된 이후 다른 주요 건설사들과 달리 그룹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크다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한다.¹⁾ 이에 본 연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경영자교체시점에 이익조정의 한 형태인 Big Bath가 발생하는지를 다른 주요건설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ig Bath란 인식하지 않았던 비용이나 잠재적 부실요소를 한 번에 정리함으로써 대규모로 이익을 하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Big Bath가 이뤄질 경우 당기이익이 감소하거나 당기손실이 증가함으로써 당기손익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차기의 손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Big Bath는 전임CEO에게 과오를 넘기고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CEO가 새로 부임할 때 주로 수행된다.

본 연구가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Big Bath현상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후 수주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및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이슈와 맞물려 지속적 분식회계 의혹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련 신문기사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 대우건설 매각이 3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쇼크'로 무산되면서 건설업계에 해외 부실 공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 (중략) … 대우건설은 2016년 4분기 빅배스를 단행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로 수주산업 회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6년 3분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냈기 때문이다…(뉴데

1) 다만 2006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인수되어 2011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되기까지는 그룹에 속해있었다.

일리 경제 2018/02/22).

본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특정 산업군이 가지는 회계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경영자 교체시점에서의 Big Bath 현상을 살펴본 사례연구이다. 수주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의 경우 진행률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고경영자의 재량적 결정에 따라 임의성이 개입될 충분한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대우건설은 다른 주요 건설사들과 달리 최고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크다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분식회계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시점을 전후한 Big Bath 현상을 건설업의 주요 계정과목들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업, 구체적으로 은행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김민석 외(2012)와 조선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권경현과 엄재근(2017)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조정현(2018)과 신재용과 강동창(2018)의 기존 연구가 대우건설에 대한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조정현(2018)과 신재용과 강동창(2018)의 연구가 특정 기간 및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였다는 점과 수익인식과 관련한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문제를 주로 이론적인 부분과 예상되는 효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우건설을 포함한 국내 주요 5대 건설사들의 Big Bath 현상을 장기간에 걸쳐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하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III장에서는 사례선정과정 및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에 따른 이익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IV장에서는 대우건설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특정 산업군이 가지는 회계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에서의 Big Bath 현상을 규명한 사례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와 Big Bath 그리고 건설업을 포함한 수주산업의 이익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최고경영자 교체와 Big Bath 현상

정규언(1992)은 신입경영자가 취임 이후 첫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전임경영자의 경영성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이용하여 취임 첫해의 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익을 과대 계상하여 이익을 이연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임기간 후반기의 경영성과를 높게 나타내기 위하여 취임 첫해의 이익을 이연 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아영 외(2007)는 교체된 신입경영자가 교체연도의 경영성과를 희생하여 미래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미래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고자 Big Bath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Big Bath 현상은 최고경영자 교체시기가 3월 이후인 경우가 이전인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를 신입경영자가 자신이 가지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작을수록 더 많은 상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김민석 외(2012)는 국민은행을 대상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Big Bath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석진과 이은철(2014)은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규모의 영업권손상인식을 이용하여 Big Bath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권경현과 엄재근(2017)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주요 3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에서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전입비율 그리고 대손상각비율의 조정을 통한 Big Bath 현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Big Bath 현상은 최고경영자의 재임용시점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아영 외(2009)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유형(내부승진, 외부영입)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부에서 승진한 최고경영자보다 외부에서 영입한 최고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음(-)의 이익을 조정을 더 크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내부승진자의 경우 전임경영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때문에 전임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곽영민과 최종서(2011) 또한 전임경영자가 강제적으로 퇴임한 경우 및 신입경영자가 외부에서 영입된 경우에 신입경영자가 전임경영자를 의식할 필요성이 적어짐으로 인해 Big Bath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생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장지경(2017)은 전임경영자의 임기 중 교체(강제적 퇴임) 후 신입경영자가 전문

가일 경우 이익의 큰 하향조정, 즉 Big Bath 현상이 나타남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신임경영자가 교체년도에 부진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도 퇴임한 전임경영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재홍(2011)의 연구에서는 교체된 신임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이익의 하향조정이 더 크게 일어나고, 신임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 경우 이익의 하향조정이 더 크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수주산업(건설업)과 이익조정

이총희(2015)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 미청구공사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4분기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낸 기업 및 분기별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의 비율이 과도한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로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승임 외(2016)에서는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Big Bath로 인한 어닝쇼크가 최고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에 의존하는 진행기준 회계처리에 따른 수주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최고경영자의 추정과 판단에 의존하는 진행기준 회계처리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가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진행기준의 한계점으로 진행기준 적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적절한 진행률의 산정, 다양한 추정요소, 공사계약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가능성 판단,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의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이재은(2017)은 건설·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수주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원인을 과도한 미청구공사채권에 있다고 보고, 재량발생액에 따른 비정상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채권의 평균적인 값을 초과하는 부분)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설·조선업 기업의 재량발생액이 음의 값을 가지는 기업들이 재량발생액이 클수록 비정상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높으며, 비정상미청구공사 크기가 큰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와 감사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보미와 박보영(2017)은 2010부터 2014년까지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453개 기

업을 대상으로 진행기준 수익인식 방법에 따른 미청구공사 계정의 변동이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 정보의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청구공사 잔액이 존재하거나, 금액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졌음을 발견하였다.

유시라 외(2016)는 건설산업의 미청구공사가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설산업이 가지는 회계적 특징 중 하나인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보유수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계정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 수준별로 미청구공사를 증가시키는 변수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경영 악화를 기록한 기업의 경우 변수의 영향력과 계수의 부호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함으로써, 미청구공사의 위험도를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우건설에 대한 사례연구로 조정현(2018)은 대우건설의 감리사례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분석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신재용과 강동창(2018)은 대우건설이 진행한 J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의 보수적 입증감사절차가 대우건설의 잠재적 부실요소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임으로써 건설업의 수익인식 문제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있어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Ⅲ. 사례선정 과정 및 건설업의 이익조정 가능성

1. 사례선정 개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대 건설사 중 (주)대우건설을 사례연구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이후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과 달리 5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그룹에 속해있지 않는 회사로서, 그동안 분식회계 의혹 및 특별감리 등 다양한 회계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교체될 때마다 해당연도의 재무성과는 크게 악화된 반면 다음 해의

경영성과는 큰 폭으로 개선됨을 보여 왔다.

이에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5대 건설사들을 비교·분석하여 재무성과에 있어 대규모 이익변동(증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최고경영자 교체시점과의 연관성에 따른 Big Bath 발생패턴을 찾고 손익에 대한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설산업(수주산업)의 회계적 특징인 진행률 변동에 따른 이익조정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우건설을 사례연구의 대상기업으로 주목하게 된 사유는 대우건설이 1999년 대우그룹 해체이후 우리나라 5대 건설사(Big 5) 중 유일하게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건설사로서, 단독적으로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Big5 건설사는 그룹에 소속되어 소유주가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에 있어서도 책임을 가지는 반면, 대우건설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 모두 최고경영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우건설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Big Bath를 시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다른 나머지 Big5 건설사에 비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우건설의 회계적 이슈

(1) 2012년 분식회계 혐의

대우건설은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1.5조원 규모의 2012 사업연도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은바 있다. 특별감리과정에서 분식액은 5천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2500억원 규모까지 줄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3천 896억원의 손실을 수년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20억의 중징계를 받았다.

(2) 2016년 3분기 실적보고서 검토의견 거절

또한 대우건설은 2016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요청자료의 제공 미흡 및

‘준공예정원가율’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한 사내절차 준수 미흡을 사유로 안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바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회계 및 감사기준 강화 조치중 하나로 도입된 ‘핵심감사제’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었다. 다만, 연말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

(3) 2018년 모로코 분식회계 의혹

대우건설의 지분 50.75%를 보유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주도로 진행된 2018년 대우건설의 매각작업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등 해외공사의 잠재 부실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또다시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은 해당공사의 부실은 2016년 Big Bath 당시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최대한 방영하는 최근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향”에 맞게 보수적으로 선반영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3.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에 따른 이익조정 가능성

(1)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의 적용

수주산업에 속하는 건설업의 가장 큰 회계적 특징은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수익을 인식하지만,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의 경우 최종적 목적물 완성까지 대부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선택한다.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은 계약 또는 공사개시 시점에 산정된 추정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의 회수와 상관없이 투입법에 따른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이 인식된다.

$$\text{당기수익} = \text{계약금액} \times \text{공사진행률} (= \frac{\text{실제발생원가}}{\text{추정총계약원가}})$$

즉, 공사 중에는 진행률(최초 예측되는 추정원가와 공사에 투입된 실제원가의 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 정산하게 된다. 만약 공사 중 자재비, 유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지연 공사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흑자공사가 적자공사로 변경됨으로써 큰 폭의 이익변동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처럼 진행기준 수익인식은 본질적으로 원가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포함한 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최종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되는 순간까지 경제여건 변동 또는 천재지변 등 다양한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작해 회계이익을 부풀려 공시한 사실이 새로운 최고경영자의 Big Bath 과정에서 밝혀져 과징금을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1년간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었다.

(2) 진행기준 적용에 따른 수익인식의 차이

① 진행률 산정의 정확성에 따른 수익인식의 차이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 산정은 추정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에 대한 비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사수익의 적절성은 신뢰성 있는 추정총계약원가의 산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말 그대로 해당 계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원가를 추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 추정에 따른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특히, 플랜트공사와 같이 특수한 여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경험치가 일반적인 공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정에 따른 요소가 더욱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수주산업들에 있어 현실적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타 공사에 비해 많이 포함 될 수밖에 없다.

예들 들어 추정총계약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총계약원가는 실제총계약 원가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그 결과 공사진행률은 과대평가되어 진다. 이 경우 고정된 계약금액에서 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 당기수익 또한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② 설계변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인식의 차이

수주 받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의 차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 발주자의 요구사항 변화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적정하게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경우 대부분의 변경사항들은 공사금액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의 경우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 전부가 변경금액으로 반영되지 못하기도 한다.²⁾

예를 들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금액이 발주자와 수주자 상호간 이견이 있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수주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인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수주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변경계약금액을 인식하는 경우, 당기수익은 과대평가된 계약금액에 진행률에 따라 산정됨으로,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수익보다 재무제표상의 당기수익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금액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누적된 설계변경예정금액은 공사를 이미 시행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실질 투입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도급미반영공사’로 손실로 처리되며 이는 공사의 준공시점에 일시에 인식되어 급격한 당기수익 하락을 불러온다.

(3) 도급공사 및 자체시행공사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

건설사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매출항목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으로 ‘공사수익’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수주)을 받아 단순히 공사만을 시

2) 특히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또는 전체 공기 단축을 위한 Fast track방식으로 설계와 공사가 병행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된다. 이러한 설계변경과정에서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이견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제 투입되는 원가가 전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하는 ‘도급공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분양수익’은 자본조달부터 공사, 분양(판매)까지 모든 행위를 건설사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시행공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둘 다 모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공사수익’은 기성을 청구하는 즉시 인식하는 반면 ‘분양수익’은 분양(판매)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한해 수익을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회계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분양수익’은 제조업의 일반적인 원가투입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급공사에서 필요하지 않는 토지의 매입비용이나, 용역비, 공사비 등의 투입원가가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데 원가투입 이후 2~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매입토지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제조기업의 매입토지의 경우 제조를 위한 영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표기되지만 자체시행공사에 필요한 토지는 분양활동에 필요한 제품(건물)을 만들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재고자산’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자체시행공사를 도급공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더 많은 매출과 이익 그리고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상에 표기되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자체시행공사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편법을 통해 사실상 ‘자체시행공사’를 ‘도급공사’로 분류하여 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표 1> 도급공사 및 자체시행공사에 따른 회계적 처리의 차이점 비교

구분	도급공사	자체시행공사	비고
매출	수익항목	공사수익	분양수익
	인식 시점	진행기준에 따른 기성청구 시점	진행기준에 따른 분양(판매) 시점
매입	필요 토지	없음	재고자산 표기 일반제조업은 유형자산 표기
	필요자금	기성청구 전 까지 공사비	토지비, 용역비, 공사비
	필요자금의 처리	매출채권	자체투자자금 또는 부채

(4) 미청구 공사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미청구공사’는 K-IFRS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계정과목이다. 과거 K-GAAP상에

서는 ‘공사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일괄 처리하였으나 K-IFRS의 도입 이후 공사채권의 청구여부에 따라 청구가 된 경우는 ‘공사미수금’으로 표기하고, 청구가 되지 않은 미청구채권은 ‘미청구공사’계정으로 구분하고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건설사는 ‘추정총계약원가’에 근거하여 원가투입법에 따라 진행률을 산정하지만, 발주처는 공사의 공정률에 근거하여 채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건설사가 산정한 진행률이 발주처가 인정한 공정률보다 크다면 원가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가 발생되며, 그 반대의 경우 ‘초과청구공사’가 발생된다.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의 경우 과거 K-GAAP상에서는 별도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결산일까지 인식한 수익금액(발생원가+손익)에서 누적 기성청구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금액으로 산정하며, ‘초과청구공사’는 누적 기성청구액에서 결산일 까지 인식한 수익금액(발생원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론적으로 ‘미청구공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회계처리 상 자산으로 산정됨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청구공사’의 회수 불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미청구공사’는 장부상 이익에서 대규모 손실로 일시에 전환됨으로써,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감한 순수금액을 ‘미청구공사’ 금액으로 표기하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은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충당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의 규모 또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은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중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과 판단력이 개입될 여지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건설업의 회계처리에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행기준의 적용, 진행률의 산정, 계약금액의 변경, 자체공사와 수주공사의 구분, 미청구공사 계정의 처

리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익조정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익조정이 회계부정에 이용되기도 하며, 실제로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같은 수주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IV. 대우건설의 사례연구

1. 대우건설의 개요

(주)대우건설은 2000년 12월 (주)대우의 건설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지만 그 시작은 1963년 9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창립한 영진토건사에서 출발했으며, 영진토건은 1973년 11월 (주)대우건설이 설립되면서 인수합병되었다. 이후 1974년 11월 대우건설이 대우개발(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82년 대우실업을 통합하여 (주)대우그룹에 편입되었다. 이후 대우그룹은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으로 국내 3개 그룹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20조원, 1998년 23조원이라는 거액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1999년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를 포함한 12개 계열사의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을 발표와 함께, 11월에 김우중 회장이 퇴진함으로써,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대우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0년 12월 27일 (주)대우는 건설부문인 대우건설, 무역부문인 대우인터내셔널, (주)대우 등 세 개의 회사로 분리되고, 존속법인인 (주)대우는 모든 부실자산을 떠안고 2001년 상장 폐지되었다.

한편, 분리된 대우건설은 2003년 12월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2006년 8월 '시공능력평가1위, 대한민국 최고건설사'에 선정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되게 되었고, 2009년 6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10년 12월 주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케이디비밸류제육호유한회사 2018년 5월 기준 지분율 50.75%)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으며, 2011년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에서 정식으로 분리되었다.

현재 (주)대우건설은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오피스, 주상복합 등을

건설하는 건축사업,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 발전소 및 플랜트를 건설하는 플랜트사업을 국내지사 7개, 해외지사 22개, 해외법인 5개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연간 매출은 11조7천억으로 주택공사 55.51%, 플랜트공사 21.19%, 토목공사 15.22%, 기타로 구성되고 있고, 국내 주요 시공물로는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 동작대교, 누리마루, 거가대교, 시화호조력발전소 등이 있으며, 해외 주요 시공물로는 파키스탄 고속도로, 리비아 종합병원, 말레이시아 텔레콤빌딩, 라오스 호웨이호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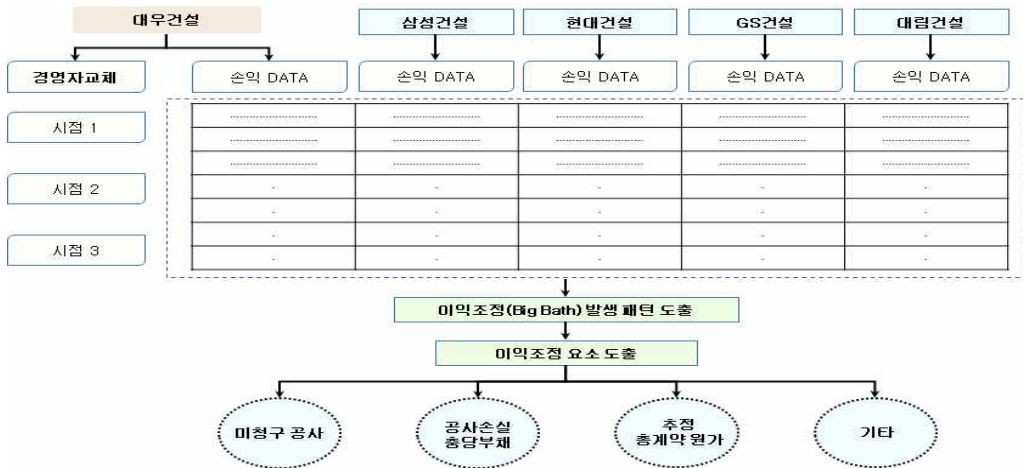
<표 2> 대우건설 주요 연혁

연 도	내 용
1963	영진토건사 설립
1973	(주)대우건설 설립(영진토건 인수합병)
1974	대우개발(주)로 상호변경
1982	(주)대우(건설/무역부문)에 편입
2000	대우건설 독립법인 출범((주)대우의 건설부문 인적분할)
2013	대우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 종료
2006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
2011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

2. 대우건설의 Big Bath 발생 패턴 분석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Big Bath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우건설을 포함한 국내 Big5건설사에 대한 2007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의 손익데이터를 기초로 변동률을 분석하고 최고경영자 변경에 대한 공시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교체 시점에서 Big Bath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Big Bath현상이 어떠한 요소들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 자료분석구조



(1)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 교체 및 주요 연혁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사태로 대우 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0년 12월 독자법인으로 해외개발 및 건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남상국, 장영수 공동경영체제로 출범하였다가 2002년 기업개선작업에 따른 자율경영체제 전환 이후 남상국 단독경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3년 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하면서 최고경영자는 박세흠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고, 최고경영자 또한 대우건설의 내부인사인 박창규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2008년 역시 대우건설의 내부인사인 서종욱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2010년 대우건설이 KDB산업은행이 주도한 사모펀드에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는 서종욱 대표이사가 연임하게 되었으나 지속적인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서종욱 대표이사가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하게 됨에 따라 2013년 최고경영자는 박영식 대표이사로 교체된다. 대표이사 교체이후 대우건설의 실적은 2008년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나, 기업가치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6년 KDB산업은행장 변경 이후,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 또한 박창민으로 변

경된다. 박창민 대표이사는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으로 대우건설 내부인사가 최고 경영자로 선임되어온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고 외부인사가 선임되는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인 2017년에 국정논란 사건과 맞물린 낙하산 사장 논란과 함께, 자진사퇴하게 되면서 송문선 부사장체계로 유지되다가, 2018년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역임한 김형 대표이사가 새롭게 최고경영자로 취임하게 된다.

<표 3> 대우건설 최고경영자 변경 연혁

연도	대표이사 이름	구분
2000. 12. 27	장영수, 남상국	(주)대우에서 인적분할
2002. 03. 18	남상국	내부승진
2003. 12. 23	박세흠	내부승진
2006. 12. 15	박창규	내부승진
2006. 12. 22	박삼구, 박창규	박삼구 금호그룹회장
2007. 11. 30	박창규	내부승진
2008. 03. 14	박삼구, 서종욱	내부승진, 박삼구 금호그룹회장
2010. 01. 15	서종욱	연임, 내부승진
2013. 07. 15	박영식	내부승진
2016. 08. 23	박창민	외부선임
2017. 08. 16	송문선	부사장 체제
2018. 06. 08	김 형	외부선임

(2) 5대 건설사 연도별 매출총이익 변동추이

먼저 <표 4>에서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Big5 건설사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출총이익을 살펴보았다. 대우건설은 2010년, 2013년, 2016년에 매출총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Big5 건설사는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2010년에는 대우건설은 4천억 이상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대림건설은 소폭감소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 대우건설을 비롯한 Big5 건설업체 모두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에 있어 대우건설은 5천억 이상 매출총이익이 감소한 반면 대부분 기업들의 감소폭은 2천억을 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의 경우 3개 건설사는

큰 폭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대우건설의 매출총이익은 6천억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전년대비 변화 비율로 비교할 경우 그 변동 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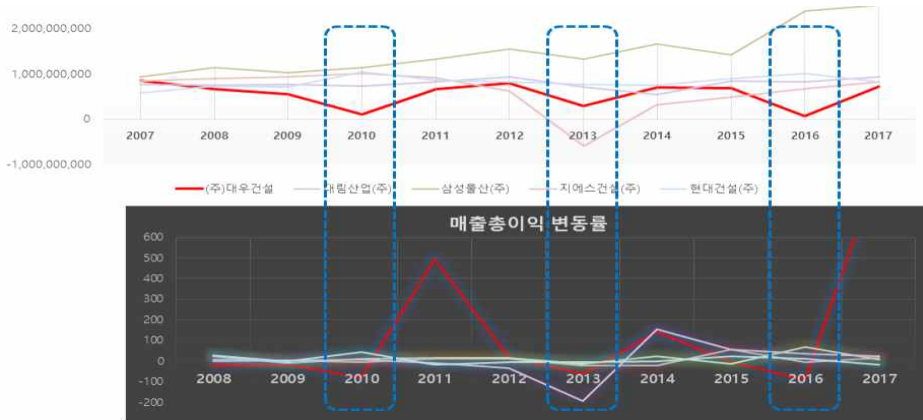
<표 4> Big5 연도별 매출총이익 (단위: 천원)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7	863,441,535	770,691,959	949,069,350	859,618,069	581,577,313
2008	678,466,706	755,148,253	1,159,217,987	912,963,729	747,547,168
2009	560,923,416	775,033,926	1,036,201,270	954,944,208	724,858,862
2010	112,801,513	741,514,898	1,158,247,416	1,017,804,072	1,050,453,240
2011	668,662,011	831,823,261	1,345,301,979	935,391,026	862,352,791
2012	805,590,210	937,333,302	1,557,265,173	630,034,157	828,607,000
2013	298,095,810	714,955,831	1,341,504,966	(585,145,189)	776,566,000
2014	721,337,632	550,011,084	1,675,205,805	322,283,263	751,522,000
2015	688,005,097	857,674,198	1,424,123,775	498,363,541	913,126,000
2016	69,935,185	824,463,008	2,399,353,543	681,793,634	1,029,391,000
2017	730,486,102	949,412,955	2,529,860,375	826,756,830	830,769,000

<표 5> Big5 건설사 연도별 매출총이익변동률 (단위:%)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8	-21	-2	22	6	29
2009	-17	3	-11	5	-3
2010	-80	-4	12	7	45
2011	493	12	16	-8	-18
2012	20	13	16	-33	-4
2013	-63	-24	-14	-193	-6
2014	142	-23	25	155	-3
2015	-5	56	-15	55	22
2016	-90	-4	68	37	13
2017	945	15	5	21	-19

[그림 2] Big5 연도별 매출총이익과 매출총이익 변동률



Note: 세로축은 금액, %, 가로축은 연도

(3) 5대 건설사 연도별 영업손익 변동추이

연도별 매출총이익에 이어 10년간 Big5건설사의 영업손익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 논란 및 2015년 합병이슈가 있었던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영업손익의 변동 폭의 대부분 30%내외에서 일어나지만 대우건설은 2010년, 2013, 2016년에 550%, 169%, 239%의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주고 있다.

<표 6> Big5 건설사 연도별 영업손익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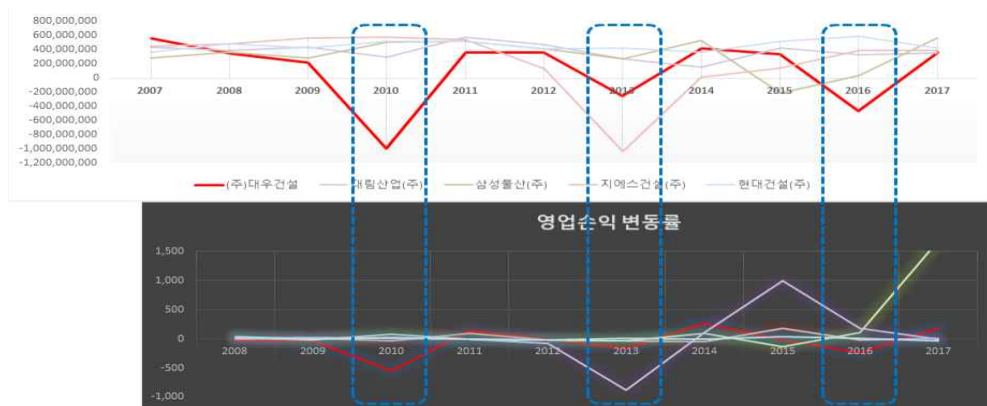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7	560,916,788	436,948,022	282,645,961	442,044,487	362,054,857
2008	343,990,655	389,317,184	364,102,295	478,323,022	480,206,135
2009	219,473,965	430,620,214	280,505,122	567,925,111	418,860,563
2010	(987,533,793)	293,735,596	509,888,269	575,431,724	517,529,564
2011	364,866,381	580,304,644	512,627,705	545,105,957	516,684,991
2012	365,215,794	466,383,235	413,920,668	133,216,129	415,634,000
2013	(253,099,375)	275,218,737	265,731,615	(1,031,396,314)	423,978,000
2014	415,480,372	154,532,868	527,572,462	12,682,602	370,242,000
2015	334,561,266	424,682,854	(209,029,561)	138,192,094	516,166,000
2016	(466,077,989)	324,706,700	31,556,764	387,818,596	589,718,000
2017	356,929,825	355,634,686	561,914,029	384,387,226	418,815,000

<표 7> Big5 건설사 연도별 영업손익변동률

(단위:%)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8	-39	-11	29	8	33
2009	-36	11	-23	19	-13
2010	-550	-32	82	1	24
2011	137	98	1	-5	0
2012	0	-20	-19	-76	-20
2013	-169	-41	-36	-874	2
2014	264	-44	99	101	-13
2015	-19	175	-140	990	39
2016	-239	-24	115	181	14
2017	177	10	1,681	-1	-29

[그림 3] Big5 연도별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변동률



Note: 세로축은 금액, %, 가로축은 연도

(4) 5대 건설사 연도별 당기순이익 변동추이

연도별 당기순이익인 변동률의 추이에서도 대우건설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앞서 살펴본, 매출총이익 변동추이 및 영업손익 변동추이와 동일하게 2010년, 2013년, 2016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Big5 건설사 연도별 당기순손익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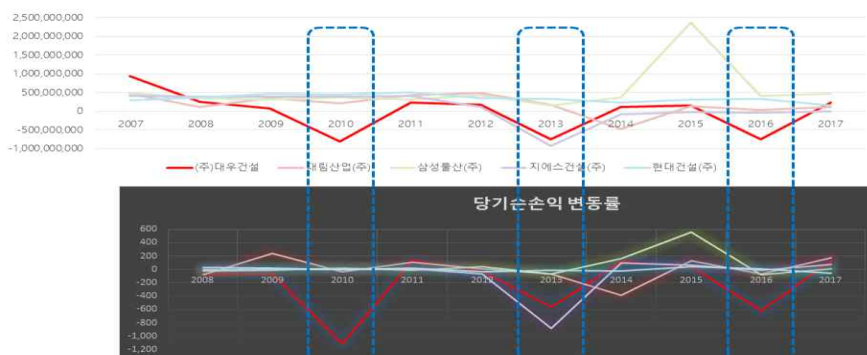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7	938,029,877	459,757,014	487,209,126	400,012,516	277,383,813
2008	247,004,264	101,487,580	345,142,450	381,553,876	373,474,014
2009	80,003,013	343,193,353	307,542,443	382,800,690	456,633,227
2010	(813,601,495)	203,610,697	358,689,928	386,600,167	434,186,213
2011	226,757,458	431,367,721	297,722,142	412,570,780	503,312,877
2012	159,398,692	488,972,525	416,125,300	119,134,177	347,019,000
2013	(743,608,176)	165,852,375	140,191,077	(926,034,068)	318,015,000
2014	107,279,926	(472,115,250)	360,818,501	(80,054,949)	223,578,000
2015	146,232,049	127,070,759	2,361,440,637	(33,041,473)	310,757,000
2016	(762,005,959)	37,541,447	409,564,914	(38,004,783)	323,133,000
2017	222,793,964	103,005,804	463,362,238	(9,837,801)	148,864,000

<표 9> Big5 건설사 연도별 당기순손익변동률

(단위:%)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8	-74	-78	-29	-5	35
2009	-68	238	-11	0	22
2010	-1,117	-41	17	1	-5
2011	128	112	-17	7	16
2012	-30	13	40	-71	-31
2013	-567	-66	-66	-877	-8
2014	114	-385	157	91	-30
2015	36	127	554	59	39
2016	-621	-70	-83	-15	4
2017	129	174	13	74	-54

[그림 4] Big5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변동률



Note: 세로축은 금액, %, 가로축은 연도

(5) 대우건설의 Big Bath 발생 패턴 분석 결과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Big5건설사의 매출총이익변동 및 영업손익변동 당기순이익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013년, 2016년에 대우건설은 타 건설사 대비 손익이 급감하였다가 이듬해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대우건설 최고경영자 변경연혁과 비교하였을 때 2013년, 2016년의 이익 급변현상은 최고경영자 교체에 따른 Big Bath현상이며, 2010년은 명목상 최고경영자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KDB산업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대우건설 회사매각 이슈 영향에 따른 Big Bath로 판단된다.

3. 이익조정 요소 분석

앞서 확인한 대우건설의 2010년, 2013년, 2016년 Big Bath에 대해서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에 따른 이익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요소들을 통하여 이익조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1) 매출원가 변동에 따른 이익조정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우건설의 매출액의 변화 및 매출원가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원가는 오히려 상승하여 98.3%의 매출원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매출액에 비해 매출원가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96.5%와 99.4%의 원가율을 나타내다가 이듬해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변동률의 평균값은 92.8%(3개년도 제외시 91.0%)이나 2010년과 2013년, 2016년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매출액변동률은 높은 매출원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변동률에 있어서도,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2010년, 2013년, 2016년에는 매출원가의 변동률보다 매출액변동률이 손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가 이듬해에는 손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대우건설의 경우 경영자교체 시 매출액의 조정보다 매출원가의 조정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감소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 중에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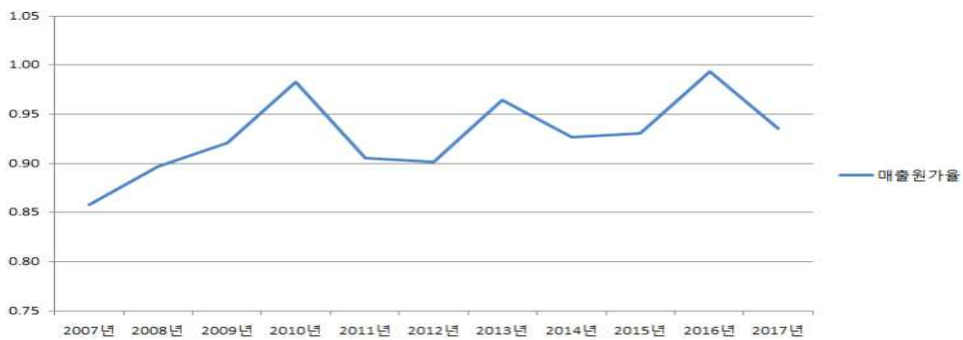
‘추정총계약원가’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공사원가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였거나, 공사원가항목 중 하나인 ‘공사손실충당부채’(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를 일시에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대우건설 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 (단위: 천원, %)

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매출액 변동률(①)	매출원가 변동률(②)	①-②
2007	6,066,558,685	5,203,117,150	85.8%			
2008	6,577,701,385	5,899,234,679	89.7%	8.4 %	13.4 %	-5.0 %
2009	7,097,386,791	6,536,463,375	92.1%	7.9 %	10.8 %	-2.9 %
2010	6,719,062,405	6,606,260,891	98.3%	-5.3 %	1.1 %	-6.4 %
2011	7,031,863,672	6,363,201,661	90.5%	4.7 %	-3.7 %	8.3 %
2012	8,180,269,589	7,374,679,378	90.2%	16.3 %	15.9 %	0.4 %
2013	8,417,075,007	8,118,979,198	96.5%	2.9 %	10.1 %	-7.2 %
2014	9,853,092,238	9,131,754,606	92.7%	17.1 %	12.5 %	4.6 %
2015	9,877,475,175	9,189,470,079	93.0%	0.2 %	0.6 %	-0.4 %
2016	10,964,615,696	10,894,680,511	99.4%	11.0 %	18.6 %	-7.5 %
2017	11,332,055,896	10,601,569,794	93.6%	3.4 %	-2.7 %	6.0 %

[그림 5] 대우건설 연도별 매출원가율

(주)대우건설의 연도별 매출원가율



Note: 세로축은 비율, 가로축은 연도

[그림 6] 대우건설 매출액변동률 및 매출원가변동률



Note: 세로축은 %, 가로축은 연도

(2) 대손상각비 변동에 따른 이익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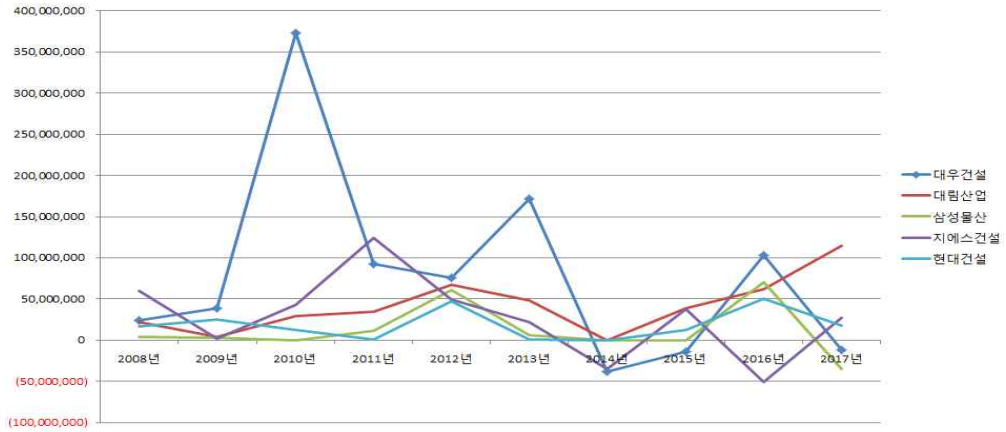
2007년부터 2017년까지 Big5 건설사의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환입)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0년과 2013년, 2016년에 대우건설은 다른 Big5건설사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대손상각비가 재무제표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손상각비의 규모를 [표 3]의 매출총이익과의 비율로 비교해 보면 2010년과 2013년, 2016년의 대우건설의 매출총이익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은 331%, 57.7%, 146.9%로 다른 Big5건설사가 10% 미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손상각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 중 하나인 ‘미청구공사’의 회계처리 방법과 연결해 보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미청구공사’를 누적으로 반영하지 않다가 일시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판단된다.

<표 11> Big5 건설사 연도별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환입)

(단위: 천원)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8	24,493,000	21,547,000	3,517,538	60,234,896	17,111,600
2009	38,616,000	4,082,000	2,525,988	2,338,288	25,304,739
2010	373,408,000	29,512,000	0	42,689,000	12,225,000
2011	92,543,000	34,890,000	11,703,701	124,429,000	545,000
2012	75,905,000	66,880,000	60,990,738	49,475,000	47,423,000
2013	171,876,000	48,720,000	5,777,285	21,791,000	530,000
2014	(38,240,000)	(176,000)	(163,918)	(34,939,339)	(346,000)
2015	(14,034,000)	38,965,000	(387,000)	38,229,447	12,766,000
2016	102,761,000	61,891,000	70,933,000	(50,975,000)	50,117,000
2017	(11,672,000)	114,798,000	(34,953,000)	27,480,000	17,259,000

[그림 7] Big5 연도별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환입)



Note: 세로축은 금액, 가로축은 연도

<표 12> Big5 건설사 연도별 대손상각비 / 매출총이익 비율

연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2008	3.6 %	2.9 %	0.3 %	6.6 %	2.3 %
2009	6.9 %	0.5 %	0.2 %	0.2 %	3.5 %
2010	331.0 %	4.0 %	0.0 %	4.2 %	1.2 %
2011	13.8 %	4.2 %	0.9 %	13.3 %	0.1 %
2012	9.4 %	7.1 %	3.9 %	7.9 %	5.7 %
2013	57.7 %	6.8 %	0.4 %	-3.7 %	0.1 %
2014	-5.3 %	0.0 %	0.0 %	-10.8 %	0.0 %
2015	-2.0 %	4.5 %	0.0 %	7.7 %	1.4 %
2016	146.9 %	7.5 %	3.0 %	-7.5 %	4.9 %
2017	-1.6 %	12.1 %	-1.4 %	3.3 %	2.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의 경우 2010년과 2013년, 2016년 경영자교체 시점에 매출원가 및 대손상각비의 조정을 통해 Big Bath를 시행하였으며, 매출원가 및 대손상각비의 조정은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점

수주산업 중 하나인 건설업은 투입법에 다른 진행기준의 적용, 진행률의 산정, 계약금액의 변경, 자체공사와 수주공사의 구분, 미청구공사 계정의 처리 등을 적용하는 회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5대 건설사(Big 5) 중 대우건설은 유일하게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건설사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크다. 이처럼 대우건설은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이라는 회계적 특징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 교체 시점과 결부하여 Big Bath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Big Bath가 시행되었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을 통해 실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첫째, 대우건설의 최고경영자 변경 연혁과 연도별 매출총이익, 영업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의 변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우건설은 2010년과 2013년, 2016년에 Big Bath가 수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대우건설이 Big Bath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재무제표의 계정이 변동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2010년과, 2013년, 2016년에 ‘매출원가’ 및 ‘대손상각비’가 크게 변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매출원가’의 변동은 건설업의 회계적 특징에서 살펴본 세부 계정항목 중 ‘추정총계약원가’ 및 ‘공사손실충당부채’(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의 변동과 관련이 있으며, ‘대손상각비’의 변동은 회수 불가능한 ‘미청구공사’의 손실처리와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추정총계약원가’ 및 ‘공사손실충당부채’(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 ‘미청구공사’의 항목을 조정하여 매출원가 및 대손상각비를 높임으로써,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2010년과 2013년, 2016년에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Big Bath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대우건설이라는 특정기업에서 Big Bath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수주산업 특히 건설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Big Bath 또는 이익조정이 발생하는 기업에 회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회계적 특징을 가지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시행코자 하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반면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상의 한계로 인하여 매출원가와 추정총계약원가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의 항목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및 대손상각비와 미청구공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원칙중심의 K-IFRS 도입으로 과거보다 경영자의 재량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익인식과 관련된 수주산업의 회계적 특징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실현하고 용인하는데 유리한 회색지대(Grey Area)를 제공하였다. 이에 규제당국은 회계처리기준과 외감법을 개정하는 등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재량적 결정에 따라 수익인식에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본질적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제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수주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적절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제도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규제당국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는 미래 자본시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자본시장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현 제도의 한계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민 · 최종서. 2011, 최고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간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 129-184.
- 권경헌 · 엄재근. 2017, 한국 조선업 Big Bath 현상에 관한 사례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7권 제1호 : 269-281.
- 김민석 · 김한수 · 최관. 2012, 사례논문: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 사례연구-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 401-429.
- 박석진 · 이은철. 2014, 영업권손상인식의 전략적 회계처리 -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2호 : 121-148.
- 박재홍, 2011, 경영자 교체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신재용 · 강동창. 2018, 보수적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처리이슈 고찰 : 대우건설 J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32권 제5호 : 1-25.
- 유시라 · 목선수, 지석호, 박주용. 2016, 건설산업 미청구공사의 위험성을 판별하는 핵심인자 추출에 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9-12.
- 이보미, 박보영. 2017, 진행기준 수익인식 방법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 미청구공사 계정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제36권 제3호 : 151-165.
- 이아영 · 전성빈 · 박상수. 2007,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제32권 제2호 : 117-150.
- 이아영 · 전성빈 · 박상수 · 최종학. 2009, 최고경영자의 교체이유와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 회계학연구, 제34권 제2호 : 45-78.
- 이재은, 2017, 비정상미청구공사 규모와 재량발생액, 감사시간· 보수 및

- 주가의 관련성,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9권 제3호 : 213-254.
- 이충희, 2015, 건설업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개혁이슈, 제5호 : 1-22.
- 장지경, 2017, 공공기관의 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와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 213-221.
- 정규언, 1992, 경영자변경(經營者變更)과 이익이연행위(利益移延行爲), 회계학연구, 제14권 제1호 : 27-50.
- 조정현, 2018,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우건설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78권 : 1-17.
- 현승임 · 한종수 · 이지원. 2016, 최근 국내 수주산업의 회계절벽: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5호 : 305-335.
- 금융감독위원회. 2015,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시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 한국회계기준원. 2015,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 진행기준의 회계처리와 공시.

Big Bath Case Study of Construction Industry at the Time of CEO Changes

- Based on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

Sung-Jae Hwang* · Yu-Won Choi** · Sang-Hyuk Moon***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Big Bath which focuses on the accounting features of a specific industry group such as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Daewoo E & 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As a result of repeatedly changing the history of change of CEO of Daewoo E & C and change of 'gross profit by fiscal year' by Big 5 construction company, 'change in operating profit and loss' and 'fluctuation in net income and los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we implemented Big Bath in 2010 and 2013, 2016. Second. As a result of check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Daewoo E & C during Big Bath, we confirmed that the cost of goods sold and the amount of bad debt expenses fluctuated significantly in 2010, 2013 and 2016. As a result, Daewoo E & C raised the cost of goods sold and bad debt expenses by adjusting items such as 'estimated total contract cost', 'construction loss allowance'. We can see that Big Bath, which reduces profits in 2010, 2013 and 2016, when CEOs are replaced.

Key word : construction industry, CEO change, earnings management, Big Bath

* First Author, Team Leader, Gyeongsan-Intelligent industry Bizhub Development, sinsekai@naver.com

** Co-Author, Professor, National Tax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afoxyer82@nts.go.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shmoon@ynu.ac.kr

